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4. 13.(월) 09:00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 행복청, 몽골·이집트 등 4개국 고위급 공무원 초청, 2026 글로벌 연수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사례 ▲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구조화 방안 ▲ 행복도시 건설과정과 개발경험 ▲ 공공주도 주택공급 모델과 도시 재구조화 ▲ 도시교통전략 및 기후위기 시대 도시 대응방안 등이다.

또한 강의주제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며 공공건축물*을 탐방한다. 아울러 서울과 판교, 철도 교통시설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 국립어린이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이응다리, 세종 예술의 전당,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이날 연수에 참여한 몽골측 연수생 대표는 “행복도시는 도시계획과 행정 기능, 정주여건이 조화롭게 구현된 매우 인상적인 도시”라며 “이번 연수는 한국의 개발 경험과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과 사업에 접목할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차장은 “이번 연수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정으로, 행복도시 개발 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행사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정보화팀	책임자	팀 장	전천규	(044-200-3360)
		담당자	사무관	이영미	(044-200-3362)





<최형욱 행복청 차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4개국(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고위급 공무원들이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 입교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형욱 행복청 차장이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 입교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최형욱 행복청 차장(가운데)이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에 참석한 4개국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행복도시 도시개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